

202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 행사명: 2023년 9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 일 시: 2023. 9. 19(목) 16:30-17:30
- ▣ 장 소: 공영쇼핑 본사 17층 대회의실
- ▣ 속기록작성 : 한채영속기사무소 

(주) 공 영 쇼 핑

속 기록 개요	
회의일시	2023년 9월 19일(목) 16:30
회의장소	공영홈쇼핑 본사 17층 교육장
회의주제	202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대표직무대행 (이종원) 상품개발1실장 (홍동표) 상품개발2실장 (장희석) 방송제작실장 (박인철) 미디어실장 (김동환) CCM실장 (정봉식) 마케팅실장 (심인창) 수산팀장 (전상운) 농산팀과장 (이수진)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방송기획팀 (이명희) 방송기획팀 (송승희) 방송기획팀 (최영정) 방송기획팀 (정세종) 박창희(시청자위원장) 김윤자(시청자부위원장) 서인환(시청자위원) 윤금선(시청자위원) 조선행(시청자위원) 김선미(시청자위원) 이순행(시청자위원) 송준호(시청자위원) 이진한(시청자위원) 임원택(시청자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속기록은 속기사의 허락 없이 정정할 수 없음.▶ ‘ ... ’ 은 청취 불능임.▶ (..)기호는 속기사의 상황설명임▶ (..)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부연설명임	
<p>본 속기록은 의뢰한 원본(녹음)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p> <p>한채영속기사무소 </p> <p>연락처: 010-3175-9649 <등록번호 : 504-31-47928></p>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안녕하십니까?

9월 추석 연휴 마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회선언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창희)

지난달 시청자위원회 끝나서 9월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날씨가 좀 선선해서 기분 좋게 만날 줄 알았는데, 여름이 왜 이렇게 긴지. 하늘이 아쉽네요.

하여간 여러분도 추석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8월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공영홈쇼핑 대회의실에서 위원님 10명 경영진 6명, 경영진외 9명. 총 25명 모여서 시청자위원회 개최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관련 13건 주셨고,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내용은 방송 중 용어설명과 제조 과정 등 자세한 설명 부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윤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9월 8일 설명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당찬 여주분말 제주산에 대한 재배 장점, 카라틴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장점 등 방송중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 의견주신 것도 모두 방송에 수용하여 반영하겠다고 의견 모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미리 공유해 드린 내용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9월 방송 모니터링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성우 위원님께서서는 사정상 불참하셨기 때문에 먼저 조선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행 위원

안녕하세요? 조선행입니다.

저는 8월 27일 밤 9시 45분에 <농협사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이 방송 3kg 짜리 2박스에 하는데, 보통 타 방송에서 2개 묶음으로 오면 하나는 크기가 괜찮고, 하나는 굉장히 작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당했습니다.

제가 공영방송 시청자위원인데, 한번 해 봐야지 하고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배달은 것은 약간 작기는 했지만, 그래도 용서가 되는 수준이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즈를 이렇게. 심한 말로 ‘농락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쇼호스트가 시연을 하면서 세척사과라고 해서 직접 깨물어 먹는 이런 시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사과나 참외나 이런 데 겉포장에 왁스인가? 마르지 말라고, 유통기한을 보존하기 위해서 왁스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려면 잘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왁스칠하지 않는 일반 생육사과나 이런 거는 겉면이 거칠거칠한데. 제가 받아서 만져보니까 약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개 사과는 왁스의 이물감이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같은 거를 받았다는 거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이게 유해성 왁스예요? 이따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행 위원님께서 직접 소비를 하셔서 크기가 같다는 건 공영홈쇼핑이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하다는 모니터링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금선 위원님께서 의견주시겠습니다.

○ 윤금선 위원

윤금선입니다.

2024년 9월 8일 9시경에 <국내산 LA갈비>를 파는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다른 방송을 좀 넘겨봤더니 NS홈쇼핑, KT알파 방송에서도 이 LA갈비를 똑같이 팔고 있었습니다. LA갈비를 다 양념해서 팔고 있었는데, 공영방송이 가격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램도 똑같았는데, 심지어 한 1만 원가량이 더 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보면서 다른 방송이랑 비교했을 때 혹시 더 비싼 걸 산 사람들은 조금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모처럼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추석 물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방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선물들을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위원 의견으로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서인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다.

○ 서인환 위원

<홍삼정원데이스틱> 퓌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아서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홍삼정 한 칸 띄고 원데이라고 쓰시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랬는데, 띄어쓰기를 썼으면 좋겠다 싶고요.

농축이라고 하는데, '농축액이 10%고, 추출액이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출방식을 물로 추출해내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출액이 90%로 더 많으면 농축액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추출액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포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세노이드라고 불리는데 이게 홍삼에 있는 사포닌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사포닌이라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진세노이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저건 다른 성분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진세노이드라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5세 이하는 밥만 먹어라.

그런데 이게 '추출액이라 뜯어서 반만 먹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컵에 담아서 반만 먹고, 반은 남겨둬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적당히 반만 잘라먹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첨가물이 없어서 당뇨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뇨치료제 사용자는 주의하라고 해서 앞뒤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당뇨환자는 주의하라는 말이 있는 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형이 있었는데요. 선물형이 있고 실속형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선물형은 여러 사람과 나눠서 먹을 수 있도록 선물용으로 쓰라고 쇼핑백을 더 넣어주는 건데, 가격이 3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쇼핑백 몇 개가 3만 원어치의 가격인가해서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주로 실속형 판매를 하는 거로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GMP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사람들이 더 좋았을 텐데. GMP이라고 하면 공정에 대한 무슨 인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WCS라고 성분 인증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성분을 달리하거나 속이고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 우리 공영에서도 얼마 전에 한우고기가 젓소 DNA가 발견돼서 반품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중소기업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검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제품이라 안 해도 되는 제품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WCS를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면 이 검사를 보고 우리는 했다는 명분도 서고, 신뢰도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홍삼의 진세노이드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흡수가 다시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사포닌은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삼이나 발효식품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포닌이 컴파운드K라는 성분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컴파운드K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축액에 사포닌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도. 한 봉지가 몇 그램인데, 그중에서 사포닌이 얼마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추출물하고 농축액하고 각각 얼마얼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쪽만 몇 mg이 들었다고 표현을 해서 전체가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있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희)

너무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봐주셔서 제가 감히 보충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자 위원님.

○ 김윤자 부위원장

저는 9월 5일 오전 9시 20분에 <농협봉화고춧가루> 판매 방송을 보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고추를 물세척을 한 고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자막나 멘트를 하면서 자막에는 한자를 써서 水세척 또 물세척 이런 말을 굳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물세척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水세척 이렇게 쓰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춧가루 구매를 갖춘 제가 생각할 때 매운 정도가 고춧가루의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고춧가루 매운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설명회에서는 고춧가루 빛깔이 곱다는 말은 여러 번 했는데, 매운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매운 정도를 왜 표현하지 않는지.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보통 맛이나 매운맛이나 맵지 않다고 하든지. 아니면 매우면 매운맛 정도는 조금 맵다 아니면 아주 맵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으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표나 이런 게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가보면 보통 어느 정도 아픈지 측정을 할 때 의사가 고통이 1~5까지. 고통이 없을 때는 1이고, 아주 고통스럽다는 5로 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고춧가루도 예를 들어서 맵지 않은 것을 0이라고 하고, 아주 매운 정도를 5라고 하면 그 중간에서 보통 맛은 한 3정도, 4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준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고춧가루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스템은 없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운 정도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감사합니다.

이건 아마 자막에서 水세척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겠지만, 당도 브릭스처럼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서인환 위원

제가 옛날에 기준위원회 있을 때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생활표지로 재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박창희)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기 멀리 계시는 윤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선미 위원

9월 3일 밤 9시 45분 <김규훈 명인한과>입니다.

상품 설명 중에 <김규훈 명인한과>가 전국에서 공영쇼핑이 가장 싸다고 했는데, 아까 윤금선 위원님과 반대된 의견입니다.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훨씬 싼 가격에 동일 제품이 다른 몰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어요. 공영홈쇼핑조차도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가가 무엇인지 정말 알쏭달쏭했구요. 가격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검증 후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4일 밤 9시 50분쯤 <루체도르24K라일라> 팔찌세트입니다.

상품 설명 중에 “총알이 부족해서 총알을 모았다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총알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매수자금을 뜻하는 주식은어인 것 같았습니다.

방송에서 은어나 속어가 아닌 바른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희)

총알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총알이 어떤 거였어요?

○ 김선미 위원

총알이 주식에서 사용하는 매수자금이라는 말이라는데요.

○ 위원장 (박창희)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방송이예요?

○ 김선미 위원

목걸이 귀금속.

○ 위원장 (박창희)

그다음 전국에서 가장 싸다고 들었다는 것은 같은 브랜드 같은 상품이?

○ 김선미 위원

네.

○ 위원장 (박창희)

그런데 다른 데 검색해 보니까 약간에 문제가 있는 멘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행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이순행 위원

8월 31일 2시경에 방송된 북부농협 아카시아꿀 <하성벌꿀세트> 제품이었습니다.

방송 중에 영상 등 벌꿀 채취에 대한 이해가 잘되는 영상을 보여줬고.

또 제가 작년에 벌꿀 관련된 모니터링 의뢰가 있었거든요.

그때 탄소동위원소비율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설명도 잘되어서 천연벌꿀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방송된 꿀이 그냥 벌꿀이 아니라 아카시아 벌꿀이었습니다. 벌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방송 중에 디스플레이된 사인물에는 야생벌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생벌꿀이 별도로 있고, 아카시아꿀이 별도로 있는데 사인물이 일치되지 않아서 판매되는 것은 아카시아꿀인데 좀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혼동을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희)

둘이 품질이 전혀 다른 건가요?

○ 이순행 위원

예.

야생화꿀은 여러 가지 꿀들을 모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만.

○ 위원장 (박창희)

아카시아만?

○ 이순행 위원

예.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까 향이나 맛이 다른 걸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송준호 위원님.

○ 송준호 위원

송준호입니다.

9월 5일 22시 50분에 방송된 <도미솔김치>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여기 표현을 할 때 '왕비포기김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침대처럼 킹사이, 퀴나이드를 나누는 방식으로 '왕비포기김치'라고 해서 사이즈를 말하는 건지. 명칭을 '왕비포기김치'라고 굳이 부르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왕비포기김치'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식품인만큼 국내산 표기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두, 천일염, 소맥 부분을 제외하고 국내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설탕, 대두, 천일염, 소맥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산이라는 것을 당연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칫 100% 국내산 재료를 쓰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자료화면에서 김치 포기나 이런 것들 당연히 맛있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장면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제품과 모양이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이럴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연 때도 이런 내용들이 함께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창희)

'왕비포기김치'라는 의미가 왕비, 퀴나이드라는 의미인가요?

하여간 항상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국내산과 국내산 아닌 것을 과장되게 하거나 숨기거나 되게 그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진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진한 위원

의견을 제출하다 보면 대개 현장에서는 이런 거까지 하나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쪽 피드백 받는 쪽에서 어떤 쪽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일영사과세트> 관련해서 결국 시기가 사과 각종 그런 류들이 선물로 많이 나왔는데, 처음에 방송할 때 사과 겉은 빨갛고, 속은 새하얗고 그런 멘트를 하면서 잘랐는데 새하얀 게 아니라 무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했죠.

이렇게 맛있는 사과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랐을 때 저렇게 무른 모양을 딱 봤을 때 좀 거시기했는데, 그다음에도 한 번 더 잘랐는데도 잘랐을 때도 그런 생각의 상상의 사과가 아니었고. 저렇게 약간 무른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사과 설명을 방금 했나. 아니면 사과 자체가 그런 사과였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시다.

왜냐하면 그때 사과의 어떤 사진상으로는 흰색의 새하얀 사과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잘라서 딱 펼쳤을 때 무른 것이 나와서. 아니면 무른 게 아니고 다른 단 맛이 나는 그런 내용인지 설명이 곁들여졌으면 신뢰가 있었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사과를 다 날개로 했어요.

날개포장이 사실 장점이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 굳이 날개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날개포장하면 사과 자체가 다른 과일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걸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효과로 날개포장을 했다고 말씀을 해 줬으면 훨씬 더 신뢰도 있고 상품의 가치가 높아졌을 텐데 날개포장의 의미가 위생적인 의미로만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책임제라는 게 중요한 얘기는 한데, 정말 불만족 시 100% 반품, 환불이라는 멘트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정말 반품했을 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반품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봤을 때 사과뿐만 아니라 맛책임제가지고 하나씩 샘플로 먹어보고 불만족하면 이렇게 반품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의문인 게 하나 먹고 반품해도 되는 건가 싶고. 그런 거 지적하신 것 같고.

항상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품과 설명과 다를 때 상당히 소비자와 약간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원택 위원님.

○ 임원택 위원

8월 28일 <대령숙수육수의 비밀>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첫 번째는 19가지 국내산 농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밑에 자막을 보면 실제로 전부 분말이랑 가루를 섞어서 두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조사가 국내산 재료를 전부 분말로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육수로 만드는

것인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외부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제조만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좀 불분명해서 궁금증을 자아냈고요.

두 번째는 맛의 비밀 특허받은 제조 방법 사용. 상황쌀누룩으로 깊은 맛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상황쌀누룩으로 제조방법을 특허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조 방법이지 맛을 증진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맛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깊은 맛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 특허로 인해서 맛이 좋아졌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쇼호스트나 밑에 자막으로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되더라고요. 이 옥수를 사용하면 맛있다, 아주 깊은 맛이다, 아주 진한 맛이다라고 하는데 의미 없는 표현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트가 젊은 아줌마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이나 블로그 찾아봤는데, 이 제품이 언급되어 있는 그런 게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표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창희)

감사합니다.

잠깐만, 분말 얘기 나와서요. 제가 콩국수를 좋아한다, 어떤 집은 진짜 콩을 갈아서 콩국수를 만들고, 어떤 집은 분말된 그 가루를 갖고 콩국수를 주는데, 다 국내산 콩국물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원래 콩을 생 거를 사서 갈아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미 분말된 것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런 의미인 것같이 생각이 돼서. 저게 아마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9월 6일 가기 전날 바로 보느라고.

<빨강진도구기자>. 마침 이거를 보는데, 한 달 전에 중국 구기자가 말썹이 나가지고 뉴스에 나온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라 그런지 몰라도 베타인, 모나콜린-K. 핵심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성분들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한두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자막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아마 소비자들한테 낯선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 주셔서 어떠한 영양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지적하는 건데, 특허라고 해 놓고 홍국발효기술 적용이라고만 써 있듯이. 두 번째 그림에 저렇게 나와서. 발효기술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기자 분물을 야채에 넣고, 어디다 넣고, 어디다 넣고 막 섞어

서 먹는데, 자막으로만 1일 5g 정도 우유나 이런 데 섞어먹어야 된다고 했고.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는 몸에 좋은지, 나쁜지 최대 양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 데나 넣어서 100g 넣어도 좋은 건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 소비자로하여금 주의할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 말은 제가 잘 모르지만 썼어요.

자사 제품 대비 베타인 함량이 151%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강조했는데, 네 번째 그림이죠? 저게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한테 질문 겸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사 측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상품개발실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품개발2실장 (장희석)

상품개발2실장 장희석입니다.

8월 31일 14시에 한 <하성벌꿀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임택 관련해서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당 협력사에 확인했는데, 최초에 협력사에서 론칭한, 상품 했던 그 방송에 네임택을 두 번째 방송에서도 교체하지 못하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협력사 실수로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수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이순행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 농산팀 (이수진)

안녕하세요. 농산팀 이수진입니다.

저는 <농협 사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를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박스가 좀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박스가 크게 되면 작은 사과들이 있는 사과에서는 자기들끼리 부딪쳐서 상처가 날 수 있어가지고 중량 위주로 담다 보니까 박스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는 왁스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스마트플래시라고 해서 사과를 오랫동안 저장하려고 일종의 가스 같은 거를 뿌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마른 휴지로만 닦아도 잘 닦이고. 이

게 헛사과다 보니까 워낙 신선해서 휴지로만 해도 깨끗하게 광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다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보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창희)

그런데 유해하지 않아요?

○ 농산팀 (이수진)

예, 유해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는 그런 고가의. 저희가 가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가스가 맞으니까.

그런데 인체에 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송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 조선행 위원

성분이 뭔가요?

○ 농산팀 (이수진)

가스의 성분이에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선행 위원

그런데 제가 만져봤을 때는 몇 개가 미끄덩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이걸 직접 그냥 깨물어드셨는데, 그거 조금.

○ 농산팀 (이수진)

그리고 <홍삼정원데이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야 익숙하니까 저렇게 붙여줬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헛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적당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방송 중에 적용하기로 하고요.

사실 농축액이랑 추출액이 있을 때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농축액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거거든요. 농축액 10%가 추출액 90%보다 원가적으로 훨씬 비싸고, 고객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농축액 위주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진세노사이드 함량 같은 경우도 추출액으로 나올 수 없고, 농축액으로만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축액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정확하게 인삼의 사포닌이 진세노사이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5세 이하 반만 섭취하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차기 방송부터는 오히려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언

급을 자제하도록 하겠고.

당뇨 관련해서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제품이 당뇨량은 상관이 없지만, 당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헛갈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형이나 실속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쇼핑백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명절 때다 보니 선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쇼핑백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실제로 많이 판매하는 것도 실속형이고, 주로 안내하는 것도 실속형인데 그런 부분은 특수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GMP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그리고 WCS 성분 인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은 워낙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많은 내용을 전달할까 수록 헛갈릴 수 있을까봐 저희가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자막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발효홍삼 제품이 아니라서 컴파운드K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봉화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써도 되기는 하는데, 한 번씩 수세척. 저희가 워낙 다양한 대중에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자만 썼을 때 헛갈려하실 수 있고, 약간 여러 고객들 입장에서 설명을 쉽게 하고자 한자로도 썼고, 물세척도 썼고, 멘트 중에 수세척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통일하거나 병기해서 헛갈림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춧가루의 굵기 같은 경우는 메쉬로 표기를 하고, 맵기는 스킵빌(SHU) 단위로 하고 있는데, 사실 고객들에게는 스킵빌(SHU)이나 이런 단위가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매운맛, 보통 굵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자세히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훈 명인한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가장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휴사에서 쿠폰이 붙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않은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차기 방송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쇼호스트 게스트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솔 김치> 같은 경우는 매진 얘기는 총동구매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요.

워낙 인기 있는 상품이고. 저번에 방송 20분 만에 모든 상품 매진되고 이랬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안내 차원에서 멘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비포기김치'라는 거는 도미솔이 판매되는 김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포기김치라고 하더라도 사랑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왕비포기는 왕비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가장 귀하게 담았다. 가장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라서 공영에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왕비포기라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설탕, 대두, 천일염, 소맥의 원산지가 있는 거는 전 구성 전 원료가 국내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원료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입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설탕은 제외를 하는 거고. 간장에 들어 있는 대두나 천일염, 소맥 같은. 간장 자체는 국내산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소맥이나 대두 같은 경우는 수입산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국내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치에 들어가는 수습여 가지의 재료가 전부 다 국내산이기 때문에 주재료 국내산, 농수산물 국내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치들 대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국내산을 쓰고 있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사전영상에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길영사과 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꿀사과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고객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저 부분이 더 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것은 단 부분은 아니고, 밀증상이라고 해서 나무가 오래됐을 때 아니면 약간 수확을 늦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거든요. 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무를 수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햇사과가 나오고 있는 시기고, 아직 신선도나 상품 품질에는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그리고 저거는 잘랐을 때 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협력사 측에서도 저걸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같은 나무에서 나온 걸로 방송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도나 측정을 꼼꼼히 하도록 하고, 다양한 상품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개포장 같은 경우는 세척이기 때문에 포장해서 드리는 겁니다.

세척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다. 캠핑 가서 등산 가서 드실 수 있게끔 포장돼 있는 거라서 고객분들에게 그런 장점을 소개하고자 날개포장을 해 드렸고요.

맞책임제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부분 때문에 반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맞책임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실제 판매율이 한 2%,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품률이.

고객분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강진도구기자> 같은 경우 이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일반 식품이거든요. 저희가 먹는 그냥 청국장 이런 것처럼 일반식품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베타인

은 혈관 속 지방 흡수하는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가게 되면 고객들은 이걸 먹음으로써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규정상 베타인 있다고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타인에 대해서 아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설명하면 좋지만 오히려 다른 오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특허받은 홍국 발효기술 적용 같은 경우는 국내산 현미를 적용했다는 자막이 나가기는 했는데, 아마 판넬이랑 멘트랑 따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같은 화면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식품이나 보니까 섭취하는데 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5g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많이 드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L바 자막에는 '기호량에 따라서 드세요.'라는 안내문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멘트로 자주 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들이 베타인 함량 150% 이거는 이 상품이 리뉴얼된 거고, 리뉴얼되기 전 버전에 대해서 베타인을 알고 드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기존 제품 대비 150% 들어갔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 상품개발1실장 (홍동표)

방송 관련된 거라서 제가 대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5시 15분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는 케이블방송이나 IPTV 채널이 많이 없을 때 공중파 PD들을 교육담당을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BBC나 이런 방송 보면, ABC 보면 PD들이 항상 중학교 수준인 사람을 기준으로 평이하게 쉽게 하라는 게 지침이었거든요. 다른 인포메이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아서 지식이 높아졌지만 그것도 지금도 적용되리라고 봐요. 저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 중에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퀴즈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자기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가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에 따라 만족감이나 실력을 자가측정해서 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면 아까 모니터링한 것도 그렇지만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맞게 쉽게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신 분도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거 저건데.’ 이미 알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은 보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조금 더 쉽게 풀어주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 방송제작실장 (박인철)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루체도르24K라일라>에서 ‘총알’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충격적인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몰 가격이 싸다 그랬는데, 저희가 제휴하는 경우에 제휴사. G마켓이나 이런 데서 자체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계속 쓰는 건 아니고. 그 시간만큼 가격을 잠깐 다운시키는. 본인들이 갑자기 해 버리면 대처가 안 되는 이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야생화 아카시아별꽃 이런 것도 꿀 키우시는 분이 봤으면 굉장히 웃었을 것 같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비포기김치’ 이것도 브랜드 제품의 규모에 비해서는 오버페이스한.

예를 들면 현대 제네시스라고 본인들이 우기는 거죠. 왕포기김치라고. 이해하기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세척, 물세척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협력사나 이런 쪽에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써놓은 거를 그냥 베껴서 쓰는 것 같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쉬운 표현을 쓰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이런 거는 저희가 상품 구성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 비록 간단한 선물포장이기는 하겠지만, 가격 차이를 저희가 이렇게 깎아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홍삼정원데이스틱> 이것도 띄어쓰기에 있어서 어처구니없는 실수인데. 모든 부분을 고객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이런 부분은 저희도 작은 부분이지만, 사실 그 채널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띄어쓰기 때문에 저도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서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게 하면 채널 자체 어떤 자존심이 있고, 우리 이 정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경험상 소비자들은 그 어려운 말을 좋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상 소비자 눈에 맞춰서 어려운 단어, 어려운 전문용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쇼호스트가 풀어서 해 주면 ‘저게 저렇게 쉬워? 왜 저런 걸 얘기하지?’ 하는 사람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말이 구태의연하지만, 이런 말씀을 한마디 던지고 싶습니다.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차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세 번째 목요일 17일 날 시청자위원회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간담회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일정을 여쭙보겠습니다.

11월 21일이고요. 가능하시면 위원회 끝나고 저녁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할 생각인데, 올해 일정이 어떠신지. 아니면 12월로 넘겨서 올해 하반기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많은 분들이 안 되시면 12월로 이월할 생각이고. 아니면 11월에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 여쭙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11월 21일 안 되시는 분.

우리가 회의 끝나고 간담회하시나요? 맞죠? 5시 반부터 6시 반 정도.

그러면 혹시 그날 6시 반까지 시간 안 되시는 분.

그냥 통과네요. 다 되시는 걸로.

그럼 11월 달로.

○ **방송기획팀장 (성혜영)**

감사합니다.

그럼 11월 간담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선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본부장님 계시는데, 한 말씀하시죠.

추석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 **본부장 (이종원)**

올해는 특히 저희 집에서 음식을 다하는 바람에 아직도 제 온몸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시간까지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속 일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를 못했는데, 오늘 끝까지 있어 보니까 우리 위

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셨구나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따라 지적만 당했다가 첫 위원님 두 분께서 칭찬을 해 주시니까
우리 MD들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공영에서 물건을 사갔고 가면 집사람한테 항상 혼납니다.
뭔가 많이 팔아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시연하는 제품과 배송되
는 제품이 같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야 되겠다.
물론 마케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고객을 기만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사실 저희가 대표님께서 임기가 돼서 저희가 직무대행을 다른 이사님하고, 제가 공동
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필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래서 심적으로 부담이 많기는 합니다. 어차피 저희
가 겪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나름 저희가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이 됐는데.
향후에는 많이 바꿀 것도 많고, 직원들이 바라는 바도 좀 많고. 그동안에 해 오지 못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국정감사가 있다 보니 뭔
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바깥으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홍보대사 역할
도 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사주시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저희 집도 몇 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것도 신뢰와 어떤 믿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사서 신뢰
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영방송이 내년에는 더욱더.

올해는 안 좋은 소문도 들렸지만, 내년에는 그런 소문 안 들리게 잘하시면 더 발전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